



<회사 개요>

상 호 : 昌成企業
 대표이사 : 洪熙福
 본사·공장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2
 주생산품목 : Antistatic Brush, Antistatic Felt, C. S. E French Antistatic Brush 외 다수
 설립일 : '85. 3. 1

本誌는 우리나라 전자부품업체의 만년 애로사항인 자금난과 기술열세를 극복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昌成企業을 찾아 보았다.

本誌가 방문했을 당시 洪熙福 社長이하 전 직원은 제품의 주문쇄도에 정신이 없었다. 이번 국제전자부품 및 생산장비전시회에서 Antistatic Brush(정전기 방지 브러쉬) 제품이 장려상을 받고난 후 국내의 많은 업체에서 오고 있는 주문이라 한다.

현재 종업원 42명, 올해 매출액 목표 20억원으로 매년 2배이상 성장하고 있는 同社의 창립동기는 현재 代表理事로 재직중인 洪熙福 社長의 정전기에 대한 연구의욕과 부품의 국산화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3명으로 시작할 당시는 정신이 없었지만, 물론 지금도 정신이 없습니다만, 어려운 일도 많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입니다” 라고 당시를 회고 했다.



洪 熙 福
 代 表 理 事

한 편 同社의 주생산품목을 살펴보면

- Antistatic Brush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기, 인쇄기기)

- Antistatic Felt (인쇄소 및 생산공정 작업장)

- C.S.E. French Antistatic Brush (필름생산공정, 전자업체생산라인) 등이며 이밖에 정전기 방지 장갑, 피복, 열쇠 등이다.

이러한 제품생산 영역에 대해 洪熙福 代表理事는 “정전기는 어디서나 발생이 됩니다. 현대와 같이 석유화학제품이 많고 특히나 정보화시대에는 더욱 정전기 발생이 심하지요. 이러한 정전기가 인체 및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심하면 인체에는 동맥경화나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및 P.C.B 작업장에서는 부품이 깨지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인체나 작업장에서의 정전기를 제거하여 여러가지면에서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우리제품의 특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부 품업체로서는 힘든 기술개발을 실현한 同社는 앞으로도 정전기제품을 바탕으로 건강제품, 제진제품, 안전제품, 생활용품, 전

자파실드제품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개 발에 100%투자와 부품업체의 신용인 “납기”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으로 알려진 同社는 인도, 일본, 멕시코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량은 극히 미약하나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부 품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이 없으면 절대로 완성된 제품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洪熙福 代表理事는 정부와 업계에 대해 “사실 저희같은 부품업체는 자금력 열세가 가장 취약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우리같은 부품업체도 여러가지 면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거의 10년을 한 제품 개발에 힘썼다면 이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젊음을 바탕으로 항상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昌成企業은 중소기업체로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쟁취한 기업이기에 8년 동안의 노력이 더욱 값지게 보일 것이 틀림없었다.

